

통남산과 더불어 불멸의 령도업적 길이 전하는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멸의 령도자육을 옮기신 50돐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총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리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높이 솟아 찬연한 빛을 뿌리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불멸의 령도자육을 옮기신 50돐을 맞는 뜻깊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해빛넘치는 통남산으로 오른다.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고있습니다.》**

영광달린 그날 통남산에 오셔서 어머니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사회주의조국을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한길로 여세계이 끝이 나가지 않는 원대한 구상을 푸르익힌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시시였던 잊지 못할 그날의 맹세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채 울려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 **《조선아 너를 빛내이리》**를 읊으시며 통남산에 혁명활동의 자욱을 옮기신 때로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 세계결지의 대학으로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통남산에서 다시신 그날의 맹세를 지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장정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귀감으로 새겨졌다.

뜻깊은 올해 대학에서 이룩한 교육과학성과는 참으로 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수많은 교육과학연구성과들, 교양적의가 큰 총실성교양도서들,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여러차례의 보여주기사업들... 교육의 질적고에서 본보기를 창조할 때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학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학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는것은 통남산의 아들딸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올은 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산모범으로 창조해 주신 총실성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하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것은 바로 통남산의 아들딸들이 이룩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삶의 신조이고 확고한 의지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본보기를 창조하는 길유에는 애로와 난관이 수많은 겹겹였다. 그럴수록 통남산마루에서 다시신 맹세를 지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로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 일어섰다.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실성을 이루기 전에 향심으로, 신념으로 깊이 새겨안으며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총실성은 통남산의 아들딸들에게 있어서 벗이요 은영이며 미래의 귀감이요 새겨졌다.

얼마전 지철학부와 지구환경과학부에서는 뜻깊은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보여주신 총실성의 고귀한 모범들과 위대한 선군령장의 내재같은 사랑과 은정속에 누려가는 값높은 삶을 긍지높이 더치는 회고자들의 이야기들은 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회고모임을 통하여 교직원, 학생들은 혁명의 전세대를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총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갈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제 해설경연, 교양거점들에서의 해설모임과 읽은책발표모임, 결의모임, 졸업생들과의 상봉모임 등 대대적, 학부당조직들에서 교육교양의 계기와 공정에 맞게 의의있게 진행하는 다양한 교양사업들은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실성을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굳건히 간직하게 하였다.

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굳건히 빛내어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애국애족의 전통을,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실성의 전통을, 통남산의 아들딸들이 생명처럼 간직하고있는 변함없는 총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더욱 빛내어갈 놀라운 교육과학성과들을 창조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자랑이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1생명, 통남산의 성스러운 총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 선군령장의 영원한 혁명전사

가 되리라!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드는 길에서 통남산의 아들딸들이 온 나라에 격조높이 더치는 불변의 신념이며 드림없는 의지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앞으로 영원히 순결하고 깨끗하며 뜨겁고 열렬한 통남산의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대학을 명실공히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정다하는 대학으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역군들을 키워내는 과학기술의 최고전당, 세계결지의 대학으로 더욱더 찬란히 빛내어나갈 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은남 사진 리충성



나노기술개발의 돌파구—주사굴현미경 연구제작

물리학과 전자재료 연구소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사굴현미경 연구제작한 실력있는 연구집단이다. 주사굴현미경은 nm크기의 공간범위에서 원자, 분자의 배치상태를 볼수 있는 첨단나노측정설비로서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밖에

연구자들이 개발한 우리 식의 3차원 디지털 체계인 《수자지주 <삼지리>》는 여러 부문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첨단연구성과이다.

실장 박사 리근수, 연구사 박정호동무를 비롯한 정보지리연구집단의 청년과학

에 만지지 못하고있다. 후보원사이며 교수, 박사인 부총장 김일광동무를 비롯한 교원학자들도 2004년에 첫 주사굴현미경 연구제작함으로써 현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의 하나인 나노기술연구와 나노기술제품개발을 위한 돌파구를 열게 하였다.

필요한 지형지물체를 컴퓨터상에서 3차원으로 볼수 있는 이 체계는 국토

이용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략회협의의 회합들과 여러번에 걸쳐 위상과 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놓지 않고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략회협의의 회합들과 여러번에 걸쳐 위상과 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놓지 않고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략회협의의 회합들과 여러번에 걸쳐 위상과 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놓지 않고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략회협의의 회합들과 여러번에 걸쳐 위상과 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놓지 않고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략회협의의 회합들과 여러번에 걸쳐 위상과 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놓지 않고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략회협의의 회합들과 여러번에 걸쳐 위상과 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놓지 않고있다.

사랑찬성과, 크나큰 공지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세계적 패권을 쥔 압전 소재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세계적 패권을 쥔 압전 소재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이것이 20년전에 제1바국 개발 및 새기술개발에서 금상을 받은 압전소재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패권을 쥔 전자재료연구소의 특기제품이다.

최첨단을 향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 선진적인 수준으로 더 잘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애의 뜻입니다.》**

신군대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찬란한 빛을 뿌리는 중앙관람홀에 들어서니 정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필 서한이 두드러지게 안겨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결미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공간이 되리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의 세계가 우리리보게 하라!

2009. 12. 17 김정일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안목과 배짱,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조선의 기상이 그대로

전거오 강성대국의 승리의 환포성이 귀전에 금시라도 들려오는 듯싶었다. 우리는 깊은 감흥을 안고 열람홀에 들어섰다. 밝은 해빛이 유난히 파스하게 비치는 아담하고 정갈한 열람홀을 꼭 세운 성능이 높은 수십대의 컴퓨터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미지의 과학세계를 탐구하는 교직원, 학생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보였다.

후대 교육발전의 돌파구인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안겨와 눈곱이 절로 뜨겁게 젖어들었다. 동행한 교수, 박사 허영철동무는 전자도서관 교직원, 학생들이 언제나 즐겨찾으며 적극 이용하는 친근한 장소로, 교육과학기술과 학과학습의 중심기지가 기본거점으로 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는 그의 눈곱도 젖어들었다.

우리는 새로운 병렬계산체계와 조종체계작성에 여념이 없는 교원들인 안영준, 왕상덕동무를 만났다. 그들은 종전에는 며칠 지어 몇달이 걸려야 했던

자료 연구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최신식전자설비들을 리용하여 이제는 단 몇분만에 끝낼수 있다고 하면서 새롭고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루빨리 완성하여 분에 넘친 사랑과 은정에 꼭 보답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원격강의실에 들어서서 순간 우리는 탄성을 터쳤다. 전자친화관 무선마이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지시봉, 투영기, 각종 원격조종기들... 원격강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진행할수 있는 최신식 전자설비들이 종합적으로 그 흔치 않게 갖추어져있었다.

우리의 찬란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후면투영기, 대형투영막 등 각이한 전자설비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곳이라 오해하기 거기에서 머 큰 보람을 느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정년 전자도서관을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우리 조국에서 서만 볼수 있는 사랑의 집, 과학의 전당이였다.

본사기자

학술교류실... 컴퓨터교육실에서 무선마이크와 지시봉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담긴 설비들을 리용하여 강의를 능숙하게 진행하는 컴퓨터과학과 조종소동무와 나라의 어엿한 정보과학기술인재들로 준비해나가는 학생들의 열렬한 모습을 그 얼마나 미처보고 대견할수 없었다.

참으로 100여종에 수만대의 최신식전자설비들이 전개된 전자도서관을 돌아볼수록 찬사만을 자아냈다. 감탄이러는 어휘로밖에 표현할수 없는것이다. 안라울뿐이더러 웃음과 가슴이 따듯하게 달아올랐다. 못 잊을 영광의 그날 우리 당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던 여간금도 아끼지 않을뿐이라 오해하기 거기에서 머 큰 보람을 느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정년 전자도서관을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우리 조국에서 서만 볼수 있는 사랑의 집, 과학의 전당이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송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새 역사를 수놓으신 희세의 위인

세월이 흘러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이 실현된 때로부터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63명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은 인류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사변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서 지난 10년은 죽은자가 산자로 다시 태어나 고고성을 터치는 새 삶의 10년이었고 고열이 청열으로 옹그러나 화창한 봄의 10년이었던 못못방식이 금방식으로 바뀐 행운의 10년이였다.

지옥행의 길에서 모태기인 그들이 꽃수레를 타고 라틴행으로 생의 궤도를 옮기고 영광과 행복의 결정에 오

른것은 정병 세계사적인 변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류레없는 사랑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을 죽음에서 영광으로 비약시켜주셨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과 지난 10년간 그들이 누려온 영광과 행복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가의 값높은 삶은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를 천봉으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꽃피어나고 빛나는 진리를 다시금 가슴 후럽게 새겨안게 된다.

안게 되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그 로록 판심을 들리시는데 아나기. 혁명 전 사 들 에 대 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처럼 숭고한 사랑과 고결한 의리가 있어 63명 비전향장기수들이 한탄한시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겼고 그들도두에게 조국통일상과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운명도 슬겜도 함께 하는 자기의 품을 조국로돌리겠다는 다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대회를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있다.

을수 없었다. 그 전설같은 현실앞에서 깊이 감동된것은 비전향장기수들뿐이 아니었다. 사상과 계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온 겨레, 온 세계가 경탄하고 칭송하였다.

주제92(2003)년 9월 공화국창건 55돐을 맞으며 선군시대 영웅대회를 발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영웅들의 얼굴을 그려보셨다. 이때 장군님의 빛나는 안방에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이 어려졌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서까지 이제는 죽은 사람으로 치부되던 그들을 품에 안아 온 나라 아닌 온 세계가 아는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모두를 이 영광의 대외장자로 불러주시었다. 몸소 영웅대회 기념촬영장에 나오시어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전사들을 향해 정답게 손을 들어 축복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을 우리는 비전향장기수들은 장군님의 존엄만 부르고 또 부르며 격정의 만세를 외쳤다.

42년간 옥중투쟁을 벌인 비전향장기수 우용각동지는 영웅대회의 연단에서 환희의 격정을 이렇게 터쳤다.

《혁명전사들모두를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키워 위대한 영웅시대를 여시고 영웅의 나라를 세우신것에 우리는 감동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신념과 의지의 최고화신이며 영웅중의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장군님의 동지, 장군님의 전사가 되는것이라는것을.》

한없이 은혜로운 아버지장군님의 품속에서 존엄과 긍지의 언덕에 우뚝 서서 삶의 향기를 한껏 풍기는 백발청춘들,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 의젓하고 멋있는것인가. 순결하고 고결하며 아름다운가. 그 향기, 그 미소에 절세의 위인이신 장군님을 아버지 모신 긍지와 행복이 한가득 실려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 못다 준것들이 있는듯 늘 마음째 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쓴 서투른 글도 몸소 보아주시고 조선작가동맹 명원으로 받아들일 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배부시고 건넰것은 비전향장기수사회화전회도 여러차례 마련해주시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미술가들이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자기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해주셨다. 우리 장군님은 이분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비전향장기수가 론문을 쓴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셨다. 하여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2명의 박사와 함께 조선문학박사칭찬을 수여받은 자라도 있고 전국민요경연에서 여러차례 당선된 동지도 있으며 여러명의 미술가, 서예가들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시다면 이들과 같은 존엄과 행복에 대해 어떻게 말할수 있랴.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가 위대하여 전사들의 삶도 이렇듯 아름답고 존엄높이 빛나는것이다.

값높은 존엄과 삶의 언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동지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며 동지들사이의 혁명적의리를 지키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영예로 여기는것이 공산주의혁명가의 도덕관이며 도덕적 품도입니다.》

배우에서 맞을 올린 조선혁명군 수령과 전사들사이애 숭고한 사랑과 믿음, 도덕과 의리로 이어지는 성스러운 혁명이다. 그 존엄한 폭풍우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가로, 애국충신으로 자라났다. 비전향장기수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고귀한 정혼을 강그리 바치였으며 수십년간이나 모진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당과 수령,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켜 싸운 통일애국투사들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앞가슴에 빛나는 조국통일상 금메달과 공화국영웅 금메달, 그것은 혁명전사의 위대한 증표이다. 거기에 얼마나 값높고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가 어려있는것인가. 이제 우리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로록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무한대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은인의 숭고한 동지애의 서사시를 펼쳐보아야 한다.

년 8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화제를 비전향장기수문제에로 옮기셨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감옥에서 수십년동안이나 용감하게 투쟁한 그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높고 고귀한 칭호로 불러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이제 조국의 품에 안기면 조국통일상도 수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도, 새 당헌증도 안겨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창밖으로 별무리가 반짝이는 밤하늘을 한동안 주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들이 세운 위훈은 저 하늘의 별처럼 빛을 뿌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한 통일애국자들인것임을 돌아오면 즉시 조국통일상 수여식을 만수대의사당에서 국가장사로 크게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그들이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뿔처럼 안은듯 후끈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장군님이신가.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있어 주위의 일이 무엇이 떠울랐다.

당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북남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귀환문제를 중요한 조항으로 밝힌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데려다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30년, 40년동안이나 지조를 지켜왔던 그들을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는가라고, 그들이 돌아오면 정치적성명도 안겨주라고 여생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마음이 좀 눌릴것 같다고 갈질신 음성으로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이 얼마나 긍지높은 애국충신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혁명전사의 삶인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정치적성명을 받아안고 혁명가가 누릴수 있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리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민모두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장군님은 혁명전사들에게 정을 주고 혁명의 승리를 주시는 위대한 동지, 위대한 령도자이시기에 남조선에서 인간계기품으로 치부되던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한몸에 안아 영광의 길정에 세워주시었다. 혁명의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판에는 지시되고 부흥하는 판제가 아니라 의리와 사랑에 기초한 진정한 동지판계로 되어야 한다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에 떠받들려 비전향장기수에게 혁명가의 본보기, 공화국영웅, 통일애국투사라는 가장 값높은 존엄과 긍지가 차례졌기 아니라.

2005년 9월말 남조선에서 한 비전향장기수가 사망하였을 때였다. 이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그이에게는 조국으로 가져다 애국렬사릉에 안치할데 대한 은정어린 의견을 취해주시었다. 혁명전사들과 정치적성명을 영원히 지켜주고 빛내여주는것을 의리로 간주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고 결단이었다.

조국의 허리를 가로지른 군사본거지의 장벽도 혁명전사들의 정치적성명도 고귀한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타는 동지애에 길을 열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비전향장기수가 론문을 쓴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셨다. 하여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2명의 박사와 함께 조선문학박사칭찬을 수여받은 자라도 있고 전국민요경연에서 여러차례 당선된 동지도 있으며 여러명의 미술가, 서예가들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시다면 이들과 같은 존엄과 행복에 대해 어떻게 말할수 있랴.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가 위대하여 전사들의 삶도 이렇듯 아름답고 존엄높이 빛나는것이다.

들에게는 0.75명 독감방역이 생환의 거처지었다. 그들은 좁디좁은 0.75명의 무방성에 앉아 비전향장기수들이 먼저 맛보도록 해주셨다.

남조선의 독감방역에서 모진 고생을 다 겪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장 훌륭한 삶의 보금자리 마련해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었다.

처음 일군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이 평양시교외의 어느 풍치좋은 산기슭에 자리잡고 살도록 할생각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둡고 그득을 제일 싫어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심리까지 헤아리려 애쓰는 곳까지 하여 그들을 조용한 교외에서 자리잡게 해야 좋겠다고, 그들이 바라보는것은 들끓는 생활의 한복판일것이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붐비고 나노소리와, 웃음소리가 차차치는 수도의 한복판에서 수십년간 생사운명을 함께 한 동지들과 조국인고, 비전향장기수들이 모두 건강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고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로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남조선의 장군님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0.75명 독감방역이 생환의 거처지었다. 그들은 좁디좁은 0.75명의 무방성에 앉아 비전향장기수들이 먼저 맛보도록 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층에는 언제나 비전향장기수들이 있다. 언제나 비전향장기수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45년이 아니라 한 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세계적 장군수 김선명동지의 말이 결코 무심히 들리지 않는다.

수십년간 독감방역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인건희생들이 오늘도 빼앗겼던 청춘, 가정, 웃음을 모두 빼앗고 환생의 희열을 한껏 맛보고 있다. 어느 집에 가보나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한 손길이 구석구석까지 미처지었다.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래어난 애기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어주세요.》

김 정 일
2002. 7. 23.》

리재동동지의 딸 리복복이의 출생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청춘시절의 행복을 되찾은 비전향장기수들모두의 기쁨이었다.

이 기쁨을 비전향장기수 장호동지는 자작사에서 이렇게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축복아, 너는 정병 장군님께서 찾아주시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영원한 생명 너로 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두가 백발의 축복이로 다시 태어났다

사회과학원과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제3차 공동학술토론회 진행

【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과학원과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제3차 공동학술토론회가 8월 31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사회과학원 일군, 연구사들과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영 사회과학원 부원장과 재일본조선사회

에서의 사회주의경제연구동향》 등의 문제제목으로 토론하였다.

이어 분과별학술과담회가 있었다.

공동학술토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생활력,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요인 등을 과학리론적으로 해설증명하고 그에 대한 리해를 보다 깊이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이들은 《국회인사청문회》의 최종결과에서 통과되어야 임명되는 최종확정절차이다. 문제는 리명박역도가 내세운 인물들이 하나같이 오랜만 부정부패경리자들이라 알려져 남조선 각계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과 경계의가 그칠새 없는것이다.

지난 8월 20일부터 남조선에서는 이들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라는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국무총리》로 지명된자를 비롯하여 새 장관후보자들이 대한 각종 부정부패사실자료들이 오를처럼 쏟아져나왔다고 한다.

역도가 《국무총리》로 내세운 김태호라는 이는 이전에 경상남도 지사를 하면서 도예산에서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자기와 처가 딸 고급승용차 2대를 사들이었다.

그러다 물가가 일어나자 자기의 차는 내놓으면서도 처의 승용차는 그대로 리용하였다. 직권을 탐용하여 수단US\$의 물품을 받아 사치한 사설, 논문표절, 허위문서조작 등 《국무총리》후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미처 다 따지 못할 정도이다. 그의 처와 장모가 경상남도

개각놀음에 비낀 기만적정체

거장군의 한 건물과 땅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인장관으로 나선 《한나라당》 의원 리재오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공금 받아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지정계부 장관으로 뽑힌자도 법률회사에 근무할 때 15개월동안 무려 4억원을 불법 횡령한 사실과 처의 죽방촌투기후 등으로 뒤소문이 분분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부처 장관을 겸임하며 이번 장관으로 나선자들도 무가 페외없이 《위장전입》과 부당승리의혹, 계약위조, 탈세 등 일일이 쫓자고 해도 정찰도의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있다고 한다.

리명박역도가 경찰청장으로 내세우자는 포악하고 잔인한 파썸광으로 악명떨친 인물이다.

이자는 서울지정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2008년의 초빙시위를 비롯한 평화적시위투쟁에 나선 인민들을 《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추운 겨울을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았을 지시하고 쌍용자동차로조의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등 몹시러지는 파쇼적악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전직 《대통령》인 루무현을 힐통기 위해 그의 자살통기를 무릅쓰고서 꾸며내며 류포시킨 것으로 하여 각계로부터 《반인간적, 반문화적》이라는 비난이 다들어지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런이 아니다. 자기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강행한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긁어모은 사실들은 이차야말로 부정부패와 온갖 비도덕적행위에서 이끌어낸 더러운 일들이라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할가치도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중되된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은 상실되고도 남는다. 이를 무시하고 그를 경찰청장으로 앉힌다는것은 민중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은 즉각 인준절차를 중지시키고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개각과 관련하여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선자들은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한 여야인민들의 질문들이 쏟아지지 비지답을 둘러면서 연속 《피송하다.》, 《알못했다.》라고 미리를 조어하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이들을 《국회인사청문회》를 《피송청문회》로 비난, 조소하였겠는가.

며칠전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던자를 비롯하여 새로 임명된 일부 장관들이 여론의 강력한 비난에 못이겨 자진 사퇴하지 않을수 없었다.

보다살이 개각놀음에서 리명박역도가 내세운 인물들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도 썩음대로 썩은 인간들이다.

이런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군인민들을 위해 그 무엇을 할수 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

은 《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열고 장관후보자들의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이니, 《평가》니 하고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패당이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서야 할 중언들을 이런 피피정부 부, 척의 의지에 있으면서 역도의 반인민적행위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앞장서서 주도해왔기때문이다.

리명박역도는 바로 이런자들을 향열에 끼고앉았어야 집권전반기에 내세운 대내외정책을 후반기에 적극 추진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리명박역도가 《천서민》이니 뭐니 하고 집권후반기에는 군로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뜻이 너스레를 떨며 개각놀음을 벌였지만 그것이야말로 파렴칙한 기만이다.

역도의 흥계를 꿰뚫어본 남조선의 사회각계와 광범한 인민들, 야당들은 리명박에게 이런 인간쓰레기들에 대한 장관인임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을수 있민 중적저항으로 맞서싸웠것이라는 건결한 의지를 표시하였다.

바빠난 리명박역도는 그 무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정년절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진행

【평양 8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청년절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과학기술성공시료신을 받들고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30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생산지휘 및 보안감시체계, 전자도서관 전자자원중

합판리체계, 1만t프레스 CNC좌체계 등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계단식암포정CNC화, 다원소통신분석체계를 비롯하여 최근에 연구한 새 제품들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판계부분 일군들, 청년과학자, 기술자, 발명가들, 군로청년들, 학생청년들이 폐막식

에 참가하였다.

리향청년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의 폐막사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나갈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서 선구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 대한 표창과 시상이었다.

람사대이다.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일터에 동맹한 정서와 광만이 차넘치니 생산문화화면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자고 선관참사작업에서도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로동총선원 정 장 옥

사회의 위대한 장군님의 특이한 천봉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동지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동지이시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행도 달게 여기시는 동지애의 화신이었다.

그이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안고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혁명전사가 받을수 있는 영광과 긍지를 최상치대로 안겨주시으로써 동지애의 빛나는 새 역사를 수놓으셨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될때마다 그이께서는 혁명전사들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고 고귀한 동지이시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행도 달게 여기시는 동지애의 화신이었다.

그이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안고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혁명전사가 받을수 있는 영광과 긍지를 최상치대로 안겨주시으로써 동지애의 빛나는 새 역사를 수놓으셨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될때마다 그이께서는 혁명전사들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고 고귀한 동지이시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행도 달게 여기시는 동지애의 화신이었다.

그런이 아니다. 자기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강행한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긁어모은 사실들은 이차야말로 부정부패와 온갖 비도덕적행위에서 이끌어낸 더러운 일들이라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할가치도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중되된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은 상실되고도 남는다. 이를 무시하고 그를 경찰청장으로 앉힌다는것은 민중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은 즉각 인준절차를 중지시키고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개각과 관련하여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선자들은 부정부패의혹들에 대한 여야인민들의 질문들이 쏟아지지 비지답을 둘러면서 연속 《피송하다.》, 《알못했다.》라고 미리를 조어하였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이들을 《국회인사청문회》를 《피송청문회》로 비난, 조소하였겠는가.

며칠전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던자를 비롯하여 새로 임명된 일부 장관들이 여론의 강력한 비난에 못이겨 자진 사퇴하지 않을수 없었다.

보다살이 개각놀음에서 리명박역도가 내세운 인물들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도 썩음대로 썩은 인간들이다.

이런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군인민들을 위해 그 무엇을 할수 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대중체육활동으로 흥성이는 일터

개천석람사대에서 잘 갖추어놓은 체육시설, 기계들을 리용하여 체육활동을 대중화, 생활화해나가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 시작하여 중

업된 누구나가 체육경기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여러가지 구기종목경기들뿐 아니라 민속유희오락경기들도 이채롭게 펼쳐지곤 하는 이곳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